승패기준 새누리 "과반" 더민주 "107" 국민의당 "35"

선거 후 책임공방·당권 경쟁 … 미묘한 시각차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의 승패 기준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승패 기준선 자체가 총선 전략과 맞닿은 데다, 어느 수준을 승리 또는 패배로 보느냐에 따라 선거 후 책임 공방이나 당권 투쟁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이다.

◇**새누리 승리, 원내 과반이냐 160석 이상이냐**=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최소한의 승패 기준선을 원내 과반 의석 확보 여부로 두고 있다. 탈당한 무소속 당선자들에 기대지 않고 과반을 확보해 둬야 총선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과반 의석에 실패할 경우 책임론에 휘말리면서 당은 내분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160석 이상은 얻어야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원내 과반 최소한인 151석은 승패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엄살' 성격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 승패 기준, 102~107석**=더민주는 승패 기준선을 102~107석에 맞췄다. 102석은 현재 의석수고, 107석은 김종인 대표가 이 의석수를 얻지 못하면 당을 떠나겠다고 약속한 당시 당의 의석수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11일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며 "김 대표가 107석을 채우지 못하면 떠나겠다고 했으니 그 또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102~107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내부적으로는 100석을 채우기 어려워 이번 선거에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특히 '텃밭' 호남의 제1당을 국민의당에 넘겨주면. 의석수를 현재 수준으로 방어해도 정치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승패 기준은 35석**=국민의당은 가파르게 오르는 지지율을 근거로 35석을 승패 기준선으로 삼았다. 호남권에서 20석, 수도권에서 4~5석, 수도권 정당득표율 15%를 통한 비례대표 10석을 얻으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40석을 전략 목표로 내세웠고, 여러 지표를 종합한 결과 35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정도면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 승리 다짐 11일 기아차 광주 제2공장 정문에서 연 '무박 2일 총력 결의대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광주시당 후보자·선거운동원·당원·지지자 등 100명이 4·13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제공〉

하지만, 30석 안팎에 머물러도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원내교섭단체를 간신히 꾸린 20석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30석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호남 외에서 안철수 대표를 제외한 의석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호남 자민련'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막판 수도권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한장은 후보에, 한장은 정당에 기표

인증샷 위해 투표용지 촬영은 안돼

■투표 어떻게 하나

광주시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투표절차와 방법에 대한 유권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11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선거일인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절차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 용지 2장을 한꺼번에 교부받게 된다. 한 장은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되고, 나머지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정당에 기표를 하면 된다.

특히 광주시 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 한 장이 추가로 교부된다. 여수와 고흥도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마찬가지로 한 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배부된다.

투표시 주의할 점도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인증샷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도 SNS·인터넷에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내용 없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홍진태·김성환·양혜령 3자 구도 … 판세 안갯속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4·13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홍진태·국민의당 김성환·무소속 양혜령 후보 등 3명이다.

이들 후보 진영은 서로 승리를 장담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대부분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양자 구도인 것과는 달리 동구청장 재선거는 3자 대결 구도다.

지역구 판세가 아직까지 속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갯속이라는 얘기다.

현재 이들 후보 진영은 선거 막바지 돌발변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치권에선 선거 초반 국민의당 바람을 안은 김 후보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 종반에 접어들면서 이 구도는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홍 후보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안정화 등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동구에서만 30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 사정을 그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양 후보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더민주 홍 후보 진영은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홍 후보는 더민주 출신 전현직 시·구의원들이 결집하면서 표의 결집과 함께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광주시 내무국 계장과 관광과장·문화정책실장·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한 그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앞선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성 출신인 김 후보는 전남도청과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치며 26년을 공직에서 근무한 정통 행정관료다. 그의 최대 강점은 인맥이 넓고 경제 전문가라는 점으로, 주변에선 행정관료 출신답게 공백상태인 구정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소속 양 후보도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다. 양 후보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 등 인파가 붐비는 장소를 돌면서 유세에 나서는 등 무소속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양 후보의 최대 강점은 지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다. 동구에서만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역현안 등 속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 후보는 그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이에 따라 양 후보 측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지역의 일꾼임을 자처하는 사람, 정당만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역출신 후보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청장재선거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이름	홍진태	김성환	양혜령
나이	58	54	53

홍진태, 풍부한 행정경험 바탕 표심 자극

김성환, 인맥 넓고 지역경제 활성화 적임

양혜령, 동구 토박이 탄탄한 조직력 승부

'화창하면 보수, 궂으면 진보 유리' 통설

■선거일 비… 날씨 변수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13일에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날씨가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상청은 11일 예보를 통해 오는 13일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올 것이라며 비는 낮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날씨가 화창하면 보수정당에, 궂으면 진보정당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이런 통설은 진보성향인 젊은 세대가 보수성향인 장노년층보다 투표의지가 강하지 않을 거란 추측에 근거한다.

날씨가 궂으면 야외로 나들이를 가려던 20~30대층이 대신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세가 강한 야당에 유리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총선일을 이틀 앞둔 여야 각 정당은 이런 통설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보다는 젊은 층의 투표 의지가 강해졌다는 점이나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의 등장, 사상 처음 총선에 적용됐던 사전투표의 영향 등의 요인에 더 촉각을 곤두세웠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날씨와 관련한 이런 통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역대 총선에서의 20~30대 투표율과 날씨의 상관관계를 살펴봐도 이런 통설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선거일에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포근했던 16·17대 총선 때 20~30대 투표율 평균치는 각각 43.7%(20대 36.8%·30대 50.6%)와 50.6%(20대 44.7%·56.5%)였다. 반면 흐리고 비가 내렸던 18·19대 총선 때 젊은 층의 투표율 평균치는 각각 31.8%(20대 28.1%·30대 35.5%)와 43.5%(20대 41.5%·30대 45.5%)로 날씨가 화창했던 16·17대 총선 때보다 되려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종합상황실장은 "(날씨 변수를 차치하고) 젊은 층의 투표의지가 높아졌다고 데이터상 나온다"며 "우리당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런 현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입장에선 이런 기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중도성향의 제3당 국민의당을 찍는 유권자가 늘면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많이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